

# Q-letter

03

2026. March

## 국가자격정보 뉴스레터

### 「이런 자격도 있어요」

전기기사 **모여라! 안전관리 직무분야 회람자!**

### 자격제도 변경사항 & 서비스 안내

- 우리 지역 디지털국가자격시험센터 안내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변경되는 자격종목 안내
-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안내
- 국가기술자격 안전철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모두의 노력
- 간편하게 발급가능한 나의 자격 취득 내용
-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발급 방법

### 언론에 비친 자격

- 산업기사, 대기업 신입 안부럽다... 월 급여 300만원 이상 수두룩
- 한국산업인력공단, 신기술 역량 갖추면 '플러스자격' 부여... AI 전기차 이어 토목·건축 분야 확대
- 반세기 이어온 기능장... 산업현장 지켜온 '최고 숙련기술' 자부심

### 2026년 2월 국가자격시험 일정

- 31~33 기사 제1회 필기시험(1.30~3.3)
- 3.7 제24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 제24회 경매사 1차 시험
- 3.14 제43회 관세사 1차 시험
- 3.14 ~ 3.31 기능장 제79회 기능장 제1회 실기시험(3.14~4.1)
- 3.21 제44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차 시험
- 3.28 제39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 제16회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1차 시험

### 자격취득자 수기

- 나를 성장시킨 18개의 훈장
- 날것의 '현장'에서 '과장'과 실력으로 증명하다

### 국가자격 부정예방

- 국가자격 부정행위 근절 및 자격증 불법대여 예방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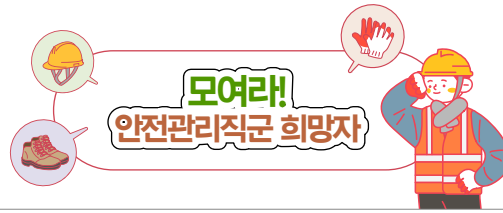
발행일  
2026년 3월 13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구독신청 및 문의  
lsh1212@hrdkorea.or.kr



# 「이런 자격도 있어요」 전기기사



QR코드를 스캔하면 큐넷(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인 시대! 산업현장 안전관리 직군 필수 자격을 소개합니다!

최근 3년간 구인 수요가 높고, 필수 자격증으로 가장 많이 요구된 상위 Top 3 자격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2025년 가을호) 및 고용24



- (수행 직무) 전기설비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전기설비의 계획, 에너지 절약기술 적용, 용량산정, 재료산정 등 설계도서 작성·감리·유지 관리 및 운용 등 시설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자격 취득 방법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필기

1. 전자기학
2. 전력공학
3. 전기기기
4.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5. 전기설비기술기준

객관식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필답형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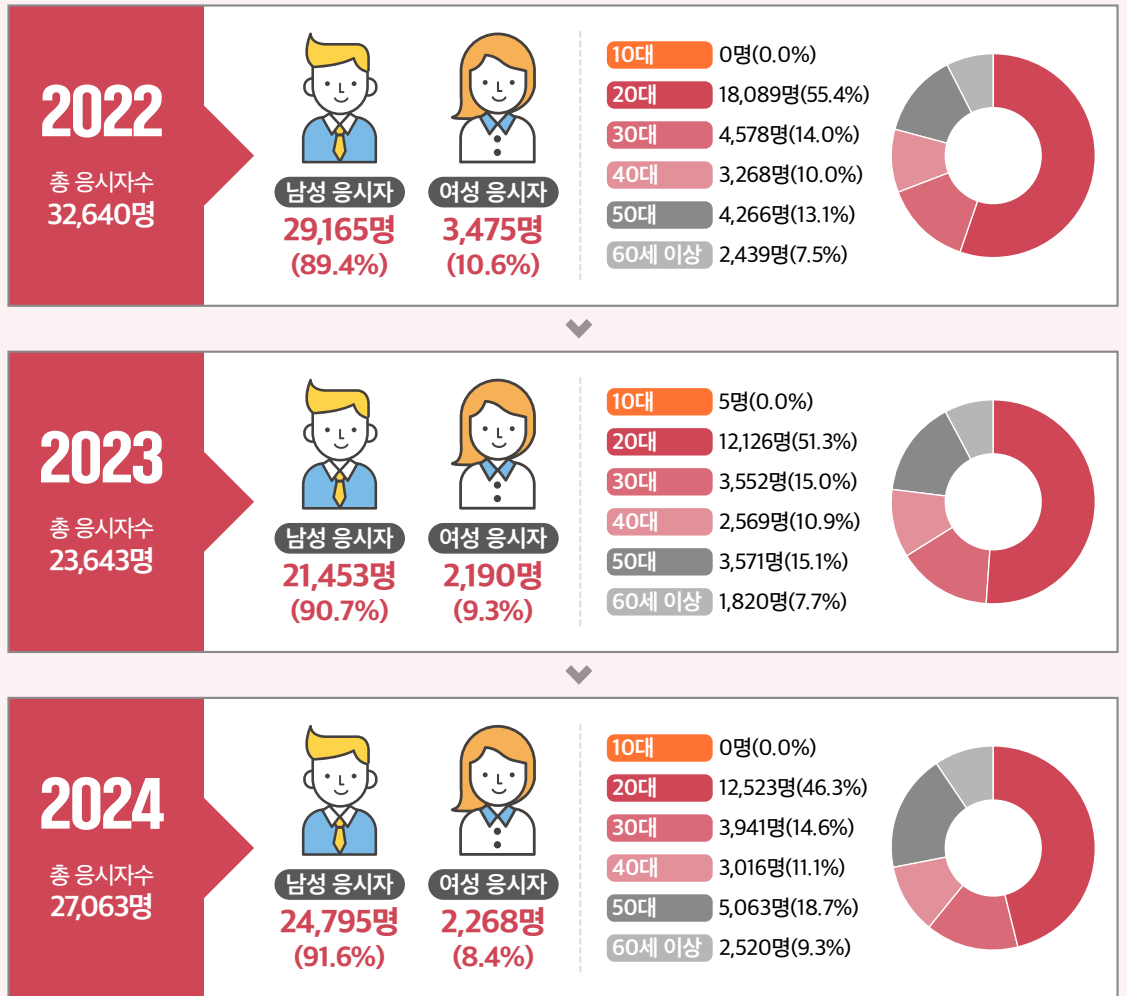
### 검정 현황 (최근 5년)

연도	건축기사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2024	57,417	15,005	26.1%	27,063	10,115	37.4%
2023	51,630	11,477	22.2%	23,643	8,774	37.1%
2022	52,187	11,611	22.2%	32,640	12,901	39.5%
2021	60,500	13,365	22.1%	33,816	9,916	29.3%
2020	56,376	15,970	28.3%	42,416	7,151	16.9%



**종목 응시 현황**

\* 실기 응시자 기준



**진로 및 전망**



**고용24 큐넷**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와 큐넷을 참고하세요

구인공고에서 전기기사를 요구한 건수와 제시 임금

(단위: 만 원, 건)

필수 자격증 여부				총합계	
필수		선택		제시임금	구인건수
제시임금	구인건수	제시임금	구인건수		
330	10,323	290	8,691	301	19,014

전기기사의 주요 구인 직종과 구인 제시임금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330만 원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335만 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350만 원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만 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341만 원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336만 원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283만 원	기타 전문 서비스업	300만 원
경비, 경호 및 탐정업	341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320만 원
전기 및 통신 공사업	291만 원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30만 원
건설업 본사	300만 원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33만 원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330만 원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우리 지역 디지털국가자격시험센터

양주  
서울  
원주  
인천  
수원  
천안  
대전  
평택  
군산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창원  
순천

**가깝고 쾌적한 디지털시험센터에서  
편리하게 응시하세요!**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변경되는 자격종목 안내



QR코드를 스캔하면 큐넷(Q-Net)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2027년 연도별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 안내			
종목명	구분	주요 변경사항	적용시점 (개정시점)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종목 신설	종목 신설	2026. 1. 1. (2023. 11. 14.)
바이오공정기능사	종목 신설	종목 신설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종목 통합	컴퓨터시스템기사로 통합	
전자계산기기사	종목 통합		
정보통신산업기사	종목 통합	정보통신산업기사로 통합	
통신선로산업기사	종목 통합		
통신선로기능사	종목 통합	정보통신기능사로 통합	
통신기기기능사	종목 통합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종목 폐지	자격 종목 폐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종목 폐지	자격 종목 폐지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종목 폐지	자격 종목 폐지	
프로그래밍기능사 (변경 전 정보처리기능사)	종목 정비	종목명칭 변경, 필·실기 과목개편, 실기시험형태 변경	
임베디드기능사 (변경 전 전자계산기기사)	종목 정비 소관부처 변경	종목명칭 변경, 필·실기 과목개편 산업통상부로 소관부처 이관	
표면실장장비기능사 (변경 전 전자부품장착기능사)	종목 정비	종목명칭 변경, 필·실기 과목개편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 (변경 전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종목 정비	종목명칭 변경, 필·실기 과목개편	
제품디자인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시각디자인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금속재창호기능사	종목 정비	직무분야변경, 실기 과목개편	
플라스틱창호기능사	종목 정비	직무분야변경, 필·실기 과목개편	
소음진동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사회조사분석사1급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건축설비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용접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용접산업기사	종목 정비	실기 과목개편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자동차정비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종목명	구분	주요 변경사항	적용시점 (개정시점)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2026. 1. 1. (2023. 11. 14.)
섬유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섬유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컬러리스트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대기환경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대기환경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토양환경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폐기물처리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축산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축산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식육처리기능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화약류관리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화약취급기능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의료전자기능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정밀화학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광산보안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광산보안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b>스마트공장산업기사</b>	<b>종목 신설</b>	<b>종목 신설</b>	2026. 1. 1. (2024. 10. 30.)
<b>스마트공장기능사</b>	<b>종목 신설</b>	<b>종목 신설</b>	
<b>산림기능장</b>	<b>종목 신설</b>	<b>종목 신설</b>	
산림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실기시험형태 변경	
산림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b>공공조달관리사</b>	<b>종목 신설</b>	<b>종목 신설</b>	2026. 1. 1. (2025. 9. 1.)
<b>봉제기능사</b>	<b>종목 신설</b>	<b>종목 신설</b>	
농업기계정비기능사 (개정 전 농기계정비기능사)	종목 정비	종목명칭 변경	

종목명	구분	주요 변경사항	적용시점 (개정시점)
건설안전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2026. 1. 1. (2025. 9. 1.)
건설안전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식육가공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b>포장산업기사</b>	<b>종목 폐지</b>	<b>자격 종목 폐지</b>	2027. 1. 1. (2025. 9. 1.)
<b>석공예기능사</b>	<b>종목 폐지</b>	<b>자격 종목 폐지</b>	
가스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가스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광학기계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건축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건축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농업기계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농업기계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에너지관리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유기농업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유기농업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산림종묘기사 (개정 전 입업종묘기사)	종목 정비	종목명칭 변경, 필·실기 과목개편	
잠수산업기사	종목 정비	실기 과목개편	
잠수기능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종자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화재감식평가기사	종목 정비	필·실기 과목개편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제과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복어조리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양식조리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일식조리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조리기능장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중식조리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한식조리산업기사	종목 정비	필기 과목개편	

만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주목!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 👤 지원대상

만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1991. 1. 1. 이후 출생)

### 📄 지원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3회 한도  
(지원 대상 연령에 포함 시 매년 3회 지원)

### 📝 신청방법

- ①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큐넷 로그인
- ② 응시료 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수수료 지원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않기" 선택

### 🔗 국가기술자격더알아보기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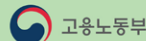
### 🔗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안내



### 📌 유의사항

-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3회이며, 지원 예산 소진 시 개인별 잔여 지원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사전 공지 예정)
- 감면된 응시료로 결제 시 연간 지원 횟수가 차감됨에 따라, 응시료 결제 완료 이후 지원을 원하지 않거나 다음 기회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결제(원서접수)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하지 않고 접수를 취소하거나, 결제완료 후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차감된 지원횟수는 복구됩니다.
- 단, 접수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차감된 지원횟수는 복구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펙자격



안전교육영상

# 안전철칙

국가기술펙자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요!



**1** 추운 날씨! 몸이 경직되지 않게 **시험 전 몸풀기**

**2** 응시종목의 **안전등급을 확인**하고 위험도를 인지해주세요

**3** 실기시험 **안전가이드**와 **교육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안전가이드) 고위험 39개 종목  
(교육영상) 건축목공, 중장비분야 등 8개 분야

큐넷 누리집-종목별 상세정보-시험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수험자 **지참공구**를 **안전하게 정비**해주세요

↳ 수험자 지참공구목록은 수험표와 큐넷-실기시험안내-수험자 지참준비물에서 확인

✓ HRDK의 국가자격시험 안전관리는 계속됩니다!

# 국가기술자격 작업형 실기시험 안전등급제



## 국가기술자격 안전등급

### Safety Level 이란?

국가기술자격 종목 안전등급을 일반인(수험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정한 안전기준지표

**1**  
관심  
\* 한국산업인력공단

도배, 세탁, 시각디자인, 실내건축, 원예, 이·미용, 자연생태복원, 전자, 컨벤션기획, 화훼장식, 철도차량 분야 등

**2**  
주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축일반시공, 공조냉동, 도자기공예, 생물분류, 조경, 콘크리트, 측량, 지적, 화공, 축산, 환경분야 등

**3**  
경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재료,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 보석가공, 산림, 양장, 에너지관리, 주조, 전기, 컴퓨터응용선반, 철도신호, 침투비파괴 분야 등

**4**  
위험  
\*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계, 건축목공, 귀금속가공,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응급인쇄, 집수, 조리, 제과, 판금제관, 항공, 화약류 관리분야 등

### | 안전등급 평가기준 |

안전지표	안전등급	판정기준	내용
위험도 4	SL 4	위험	치명적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위험도 3	SL 3	경고	심 각 중대한 부상(일정시점 업무 복귀 가능)
위험도 2	SL 2	주의	중정도 응급조치 이상이 필요한 중대한 부상(동일한 업무 복귀 가능)
위험도 1	SL 1	관심	경 미 응급조치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부상

※ 안전등급은 종목별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율을 반영함  
※ 안전등급은 출제기준 변경, 개편, 실기 시험 평가 방법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2024.3.10. 기준)

# 간편하게 발급가능한 나의 자격 취득 내용!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과  
**국가기술자격 디지털배지** 는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 에서  
**발급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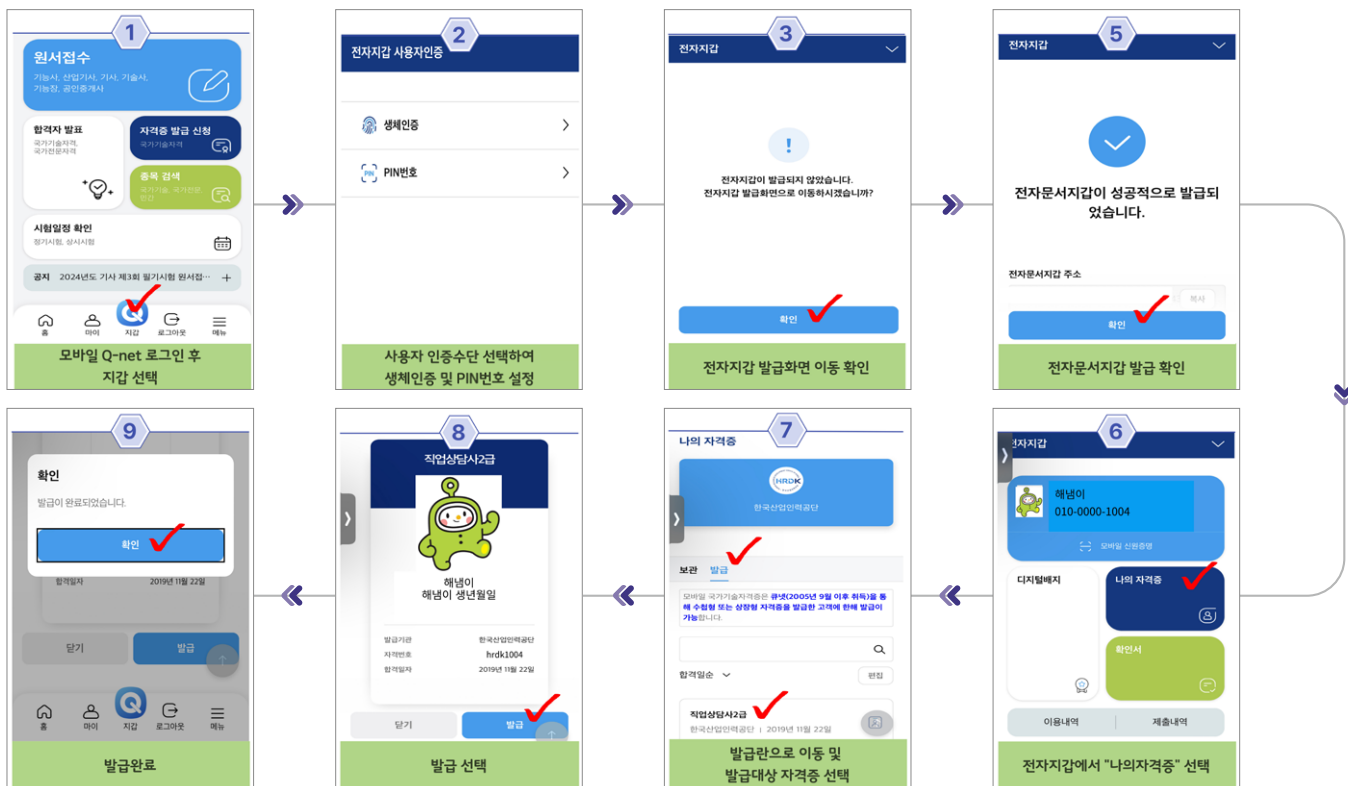
#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 활용하기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발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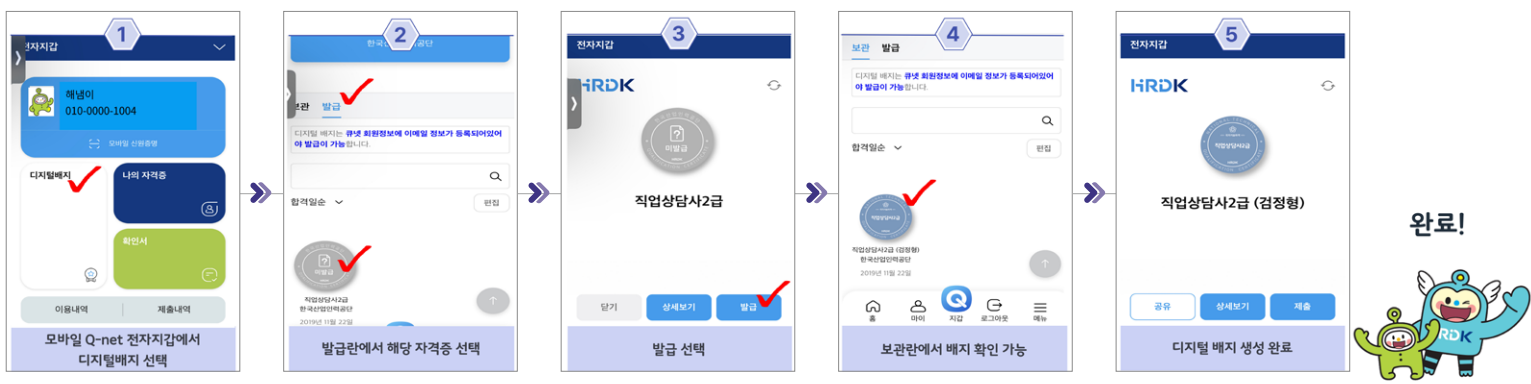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큐넷(Q-Net)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면? 큐넷 전자지갑 내 디지털 배지와 모바일 자격증을 발급 받으세요!  
클릭 몇 번이면 발급 가능! 언제 어디서든 나의 자격 취득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요!

## 1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 활용하기\_ 모바일자격증



## 2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 활용하기\_ 디지털배지



# '산업기사', 대기업 신입 안부럽다... 월 급여 300만원 이상 수두룩



2026년 2월 19일 매일경제 노승욱 기자(noh.seungwook2@mk.co.kr), 조동현 기자(cho.donghyun@mk.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역 시절 못잡은 고소득을 누리려면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고 조합해야 할까.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64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수준(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에 따른 임금 데이터를 분석, 제시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참고할 만하다.

이에 따르면, 산업기사 자격증만 있어도 웬만한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임보다 높은 급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안전산업기사(346만원)'에서 '산업안전기사(375만원)'를 거쳐 '위험물기능장'을 추가 취득하면 월급이 508만원까지 뛴다. 기사 단독 취득 대비 133만원(35%) 높은 수준이다.

위험물기능장은 위험물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이다. 유사 분야에서 9년 이상 경력을 쌓거나,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경력 5년을 쌓으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소방설기(전기) 분야는 '소방설비산업기사'가 월평균 약 299만원, '소방설비기사'는 월평균 약 313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을 추가 취득하면 59만원 오른 월평균 약 372만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설비(기계) 분야에선 '소방설비산업기사'가 약 292만원, '소방설비기사'는 약 305만원의 월 평균 임금을 받았다. 또한, 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기사'를 추가 취득했을 때 약 378만원으로, 기사 단독 대비 73만원 임금이 상승했다.

전기 분야는 '전기기능사'(약 261만원), '전기산업기사'(약 280만원), '전기기사'(약 292만원) 순으로 평균 월급이 상승했다. 기사 취득 후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월 평균 임금이 약 357만원(기사 단독 대비 65만원 상승)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지난 5년간(2020~2024년) 만 50~64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1만명의 취업 성과도 분석했다.

취업 성사율이 가장 높은 자격증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다.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중장년층의 54.3%가 6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했다. 이어 '에너지관리기능사'(53.8%), '산림기능사'(52.6%), '승강기기능사'(51.9%), '전기기능사'(49.8%) 순으로 '빠른 취업' 성과가 높았다.

고용 안정성을 선호한다면 '공조냉동기계기능사'를 눈여겨보자. 취득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중이 46.7%로 가장 높았다.

'에너지관리기능사'(45.2%), '승강기기능사'(42.7%), '산림기능사'(42.0%), '전기기능사'(41.4%)도 장기간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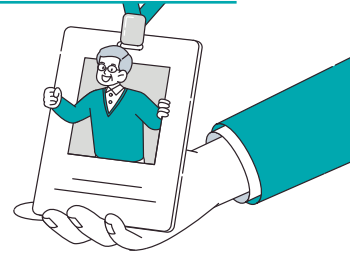
'기능사'로도 비교적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운전기능사'다.

평균 월급이 369만원, 326만원으로 300만원을 가뿐히 넘어섰다. 이어 불도저운전기능사(295만원), 기중기운전기능사(284만원), 철근기능사(284만원) 순이었다.

자격증으로 장애를 뛰어넘은 사례도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25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 공모 우수사례집'에 나온 50대 박익근 씨 얘기다. 경기도 한 산업단지 시설관리 업체에 근무 중인 박씨는 2007년 30대의 나이에 고압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로 양 팔을 잃었다. 굴하지 않고 의수의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운 채 펜의 각도를 유지하며 어깨 힘으로 글씨를 써서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는 소방설계 사무소에서 소방 설계 검토와 도면 파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박 씨는 "자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증거였다"고 전한다.

## 중장년 인생 2막을 여는 열쇠

### 여러 분야보다 '한 우물' 유리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할까.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 일단 전기·소방·안전 등 분야는 법적으로 자격 선임이 필요한 직무가 많아 자격증 보유 여부가 채용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근무 형태 수용 가능성, 현장 적응력, 최소한의 실무 이해도가 함께 평가된다. 자격증이 '응모권'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로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자격증이 공공 얼어붙은 재취업 시장을 여는 황금열쇠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잖다. 특히, 전문 인력 수요가 많은 시설관리,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60대 이후 근무자도 흔한 편이다. 물론, 직무 성격에 따라 성별과 나이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연구센터장은 "체력이나 속도를 중시하는 일부 현장 단순 노동직, 조직 문화 적합성을 강조하는 서비스·영업직, 신기술 중심의 일부 IT 직무에서는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연령이나 성별이 부담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유망 자격증을 선점하려면 정부의 정책 흐름을 읽어야 한다. 규제 강화 흐름이 안전과 환경을 거쳐 최근에는 소방 분야로 옮겨가면서 소방기술사 등 관련 자격증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2022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며 점검 방식과 대상이 강화됐다. 아파트는 공용 부분 위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모든 세대가 2년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내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상가도 연면적 기준에 따라 점검 수위가 결정되는데, 최근에는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기준이 계속 낮아지고(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초기 단계에 관련 자격을 선점하는 것이 재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방법이다"라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자 1년에 1개씩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장인들도 있다. 경단녀 특채로 포스코 입사에 성공한 심경희 씨는 업무에 적응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정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천정크레인운전기능사, 제선기능장, 주조기능장, 제강기능장, 압연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 등 무려 18개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는 기계정비 산업기사로 근무 중이다.

과거에는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다양하게 취득하는 것이 경쟁력으로 인정받았다. 한 기술자가 여러 직무를 동시에 맡는 '겸직'이 가능해 기업도 '멀티 플레이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요즘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의 자격으로 한 분야의 안전관리만 '전담'하도록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산업안전관리기사, 품질경영기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모 대기업 직원 A씨는 "10년 전에는 나처럼 서로 다른 자격증이 여럿 있는 게 취업에 유리했다. 겸직이 제한되고 직장에서 장기 근속이 어려워진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직과 재취업을 위해선 전문성을 위해 특정 분야에서 상위 자격증을 계속 따는 한 우물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이 보다 현실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승환 센터장은 "중장년층의 자격 취득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 경험이나 실무 경력을 인정해 일부 과목 면제나 대체 평가로 연계하는 등 자격 취득 방식의 다양화도 필요하다"며 "자격 취득자 증가에 따른 과잉공급 우려에 대해서는 시험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자격 취득 이후의 활용 경로와 역할을 세분화해 현장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장년 기술 인력 재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중장년 특화 훈련 규모를 지난해 2800명에서 올해 77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통해 자격 취득과 연계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중장년고용네트워크 40곳을 운영 중이다"라고 전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신기술 역량 갖추면 '플러스자격' 부여...시 전기차 이어 토목·건축 분야 확대



2026년 2월 19일 한국경제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와 직무 세분화로 하나의 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존 국가기술자격에 추가 직무역량을 인정하는 '플러스자격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플러스자격, 토목·건축으로 확대

인공지능(AI)·로봇과 데이터 기반 자동화, 스마트건설 등 신기술은 직무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격체계는 변화를 따라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플러스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유지하면서도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플러스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생성형 AI 등 신기술·신융합 분야의 직무역량을 추가로 습득했을 때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시해주는 확장형 자격제도다.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자격 위에 추가 역량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가기술자격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범사업은 산업계 수요가 많고, 현장 적용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와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2020년 정보기술(IT)·사업관리 ISC와 전자 ISC가 참여해 '인공지능 응용

소프트웨어(SW) 개발'과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분야에서 첫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제도의 틀을 마련했다.

2024년에는 자동차 ISC를 중심으로交通安全공단과 협업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관련 훈련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플러스자격을 부여했다. 전기자동차 확산에 따라 현장에서 요구되는 신규 직무역량을 기존 자격과 연계해 반영한 사례다.

올해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정보모델링(BIM)으로 확대했다. BIM은 3차원 모델에 공정과 공사비 같은 건설정보를 결합해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건설 현장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BIM 플러스는 토목·건축 산업기사나 기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에 해당 역량을 추가로 표기해 주는 제도다.

## 재배치·재교육까지 활용

건설 ISC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토목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BIM 교육과 평가를 진행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플러스자격 시범사업은 미래 건설인력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BIM 기술을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시키는 매개체”라며 “스마트건설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BIM 전문인력 확보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플러스자격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계 수요를 출발점으로 한다는 점이다. 산업인력공단은 ISC 등 산업계 대표 기관이 참여하는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 직무역량을 발굴한 뒤 기존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성, 직무 범위의 명확성, 교육·평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 분야를 선정한다.

플러스자격은 자격취득자와 기업 모두에 활용 가치가 높다. 자격취득자는 기존 국가기술자격을 바탕으로 추가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경력 개발과 직무 확장에 도움이 된다. 기업 역시 인력의 기본 자격과 함께 검증된 추가 직무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의 초기 활용단계인 채용을 넘어 배치, 재교육 과정에서도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인력공단은 올해도 산업계 수요조사를 실시해 플러스자격 운영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AI와 데이터 활용 등 직무 변화가 빠른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자격증에 추가 역량을 공식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도 병행 추진한다.

천학기 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는 “플러스자격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국가기술자격을 기반으로 현장이 요구하는 추가 직무역량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실제 활용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반세기 이어온 기능장... 산업현장 지켜온 '최고 숙련기술' 자부심



2026년 3월 2일 강원도민일보 김혜정 기자 hyejikim@kado.net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975년 시행 실무 바탕 독보적 지위 확립 기술전승·산업고도화 이끌 정책대안 관건

강원도 산업현장에서 기능장은 여전히  
'최고 숙련 기술인력'의 상징으로 통한다.

기능장 제도는 1973년 12월 31일 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1975년부터 본격 시행돼 산업 현장에 뿌리를 내렸다.

도입 당시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이원화돼 운영됐고 기능장은  
기능계 자격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설계됐다. 당시 체계는 기능사보-  
기능사2급-기능사1급-기능장 순으로 구성돼 현장 숙련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였다.

이후 산업 현장의 변화에 따라 기능장 종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1986년에는 최고 숙련기술자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명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능장은 명장으로 가는 필수 관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기능장의 위상이 높아지며 1992년 국내 1호  
조리기능장이 탄생하는 등 종목 다변화가 이뤄졌다.

1998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999년 시행)을 계기로 기술계와 기능계  
구분이 폐지되고, 현재의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로 이어지는

5단계 체계로 통합됐다. 이 개편을 통해 기능장은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한  
현장 관리자이자 최고 숙련 기술인력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굳혔다.

현재 기능장 시험과 자격판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며, 응시와  
판리는 큐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기능장 응시를 위해서는 동일유사 직무  
분야에서 최소 7년 이상의 실무 경력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강원지역 기능장 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위험물 기능장이  
매년 가장 많은 합격자를 두드러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3년 5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에도 44명을 기록하며 지역 내 대표 기능장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에너지관리, 배관, 전기, 가스 분야 역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금속재료, 전자, 주조, 제강 등 제조 기반 기능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는 소수 인원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강원  
산업 구조가 생산 중심에서 안전·관리·시설 운영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세기를 넘긴 기능장 제도는 여전히 강원 산업현장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숙련기술 전승과 산업 고도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제도적 활용 방안 마련이 향후 과제로 남고 있다.

# 2026년 3월 국가기술자격 & 국가전문자격 시험일정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큐넷(Q-Net)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큐넷(Q-Net) 국가자격 월간 시험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월 March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기사 제1회 필기시험(1.30~3.3)		기술사 제138회 면접시험 원서접수	제43회 관세사 1차 빈자리 원서접수		제24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 제24회 경매사 1차 시험
8	9	10	11	12	13	14
기능장 제79회 실기시험 빈자리 원서접수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 빈자리 원서접수			제41회 경영지도사 1차 원서접수 제41회 기술지도사 1차 원서접수 기사 제1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기능장 제79회 실기시험(3.14~4.1)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3.14~4.1) 제43회 관세사 1차 시험
15	16	17	18	19	20	21
			기능장 제79회 실기시험(3.14~4.1)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3.14~4.1) 기능사 제2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제39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빈자리 원서접수 제16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빈자리 원서접수 제16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빈자리 원서접수		제44회 국가유수관리기술자 1차 시험
22	23	24	25	26	27	28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제63회 세무사 1차 원서접수 기술사 제138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제63회 변리사 1차 합격자 발표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최종 합격자 발표	제23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빈자리 원서접수		제39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 제16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제16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시험
29	30	31	4/1	4/2	4/3	4/4
	기능장 제79회 실기시험(3.14~4.1)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3.14~4.1) 기능사 제2회 필기시험 빈자리 원서접수		기술사 제138회 면접시험 원서접수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원서접수 제26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원서접수			



# 나를 성장시킨 18개의 훈장



2025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입상작, 심경희 님((주)POSCO, 기계정비산업기사)

길은 여러 갈래, 길 위에도 길이 있고, 길속에도 길은 있다. 통근버스에서 내려 사무실로 가는 길 옆 화단엔 진홍빛 장미꽃이 넝쿨을 지어 담장으로 올라가고, 그 위 하늘엔 용광로가 뿜어내는 수증기가 구름에 섞여 춤을 춘다. 붉은 색깔 장미꽃은 묵직한 쇠소리와 묘하게 어울리면서 역동적인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실로 올라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 뒤, 업무용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화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낸 '국가자격 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안내 메일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사실 작년에도 이 공모전을 눈여겨봤지만, 선뜻 도전하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다. 퇴근 후 집에 와서까지 그 메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문득 그동안 몇 개를 취득했는지 궁금해서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자격증을 하나씩 꺼내 거실 테이블에 펼쳐 보았다.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워드프로세서 2급, E-프로페셔널, 한식조리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천정크레인운전기능사, 대기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제선기능장, 주조기능장, 제강기능장, 압연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 부동산 공인중개사까지 모두 18개였다. 어느 하나 쉽게 얻은 건 없었다. 모두 시간과 노력, 집요한 열정이 만들어낸 내 삶의 흔적이며 소중한 훈장들이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 동네 아줌마에서 철의 여인으로

서른여덟, 적지 않은 나이에 난 취업에 성공했다. 요즘 신입사원들처럼 학점 관리와 외국어 공부, 다양한 자격증으로 화려한 스펙을 쌓아 입사한 건 아니었다.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아, 큰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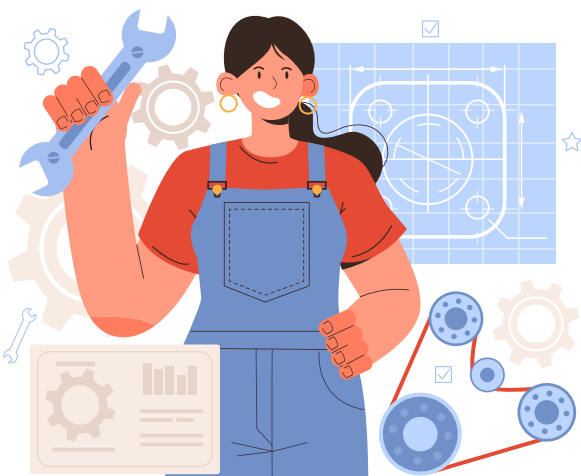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가는 평일 오전에는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했던 한국어 강사 과정을 수강하고, 포항 근처 마을에 사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이 사회생활의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 아침 뉴스에서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둔 철강 회사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정규직으로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회사였기에 내 마음속에도 파도가 일렁거렸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는 희망과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과 경력도 없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허망의 교차로에서 난 초라한 입사원서를 제출했다. 원서 자격증 란에 적힌 건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워드프로세서 2급,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전부였다. 최종 지원자는 30명 모집에 4,001명!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마지막 3차 면접까지 모두 통과해 무려 133대 1의 경쟁을 뚫은 것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사회봉사활동을 했고,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쳤으며, 자격증을 공부하며 배움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았다.

회사에서 보낸 축하 꽃다발이 집에 도착하던 날, 두 아이는 "엄마, 축하해!" 하고 달려와 품에 안겼고, 남편은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겠다고 연신 셔터를 눌렀다. 그날은 세상의 모든 구름이 내 발 아래 깔린 것처럼 가슴이 벅찼다. 합격자 명단을 뚫고 나오는 듯 선명하게 적힌 내 이름 석 자는 그때까지 본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이름이었다.

## 무지개 꿈을 꾸다

회사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소식은 당시 우리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웬만한 주부라면 한 번쯤 지원을 고민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주변의 부러움이 더해져 기쁨은 배가 되었고, 내 머릿속은



온통 무지갯빛 환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인재창조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업무 배치를 받은 순간, 찬란했던 무지개는 금세 사라졌고, 난 컴컴한 터널 속에서 갈팡질팡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처음 맡은 일은 협력사를 관리하며 댐수 처리와 수질 진단 및 용수 공급 을 총괄하는 업무였다.

협력사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작업 내역 확인, 월말 정산도 나의 몫이었다.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업무의 흐름과 처리 방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멘토에게 배우면 되었다. 문제는 기계·전기·설비 관련 낯선 용어들이었다.

주변 동료들이 많은 것을 알려주었지만, 나는 덕트, 쿨링 타워, 공조기, 컴프레서, 변압기 같은 기본 용어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협력사 직원들과 동료들에게 묻고 또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업무에 바쁜 사람들에게 자주 질문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자격지심에 혼자 걸도는 것 같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화려한 커리어 무명의 길은 저 멀리 무지개 너머에 있는 듯했다. 결혼 후 10년 넘게 동네 아줌마로 살던 내가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과 함께 일을 했으니 오죽했으랴.

기본기가 없으니 업무 대화에 끼어들기도 어려웠고,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문득 자괴감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133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온 저력을 믿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는데,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피하지는 말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짐했다. ‘한 번 들은 내용은 절대 두 번 묻지 않도록 무조건 기록하자.’

작은 수첩에 현장 용어를 빠짐없이 적어 반복해서 외웠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인터넷과 책을 찾아가며 익혔다. 그리고 나의 전문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 국가자격증이라는 생각에 퇴근 후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 컴컴한 터널 속에서 빛을 보다

처음 도전한 자격증은 기계정비산업기사였다. 공유압, 설비 진단 관리, 계측 정비 및 전기전자제어 등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과목들이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퇴근하자마자 인재창조원으로 달려가 수업을 들었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빠짐없이 적어 두었다가 쉬는 시간마다 교수님께 질문을 했으며, 집에 돌아와선 기계 정비의 원리와 용어를 머릿속에 다시 새겼다.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은 통째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몇 달간의 노력과 반복 끝에 1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 내 예상은 적중했다.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익힌 학습 덕분에 낯설던 기계와 전기 용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업무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실무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 동료들이 나누는 기술적 대화에 늘 걸돌던 내가 이제는 조금씩 의견을 보탬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신감이 생겨 다음에는 산업안전기사에

도전했다. 협력사 안전관리를 맡으며 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만 해왔는데, 자격증을 공부하고 나니 현장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현미경과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한꺼번에 얻은 느낌이었다. 그 결과 작업장 안전 시설물 개선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회사 직무와 관련된 모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다. 특히 회사의 주력 분야인 철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제선, 제강, 주조, 압연, 금속재료 기능장 자격증에 차례로 도전해 모두 합격했다. 그중에서도 금속재료기능장은 학습 분량이 방대하고 난이도가 높아 공부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소중한 자격증이다. 금속 재료의 가공, 시험, 열처리, 품질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쌓으며 금속 원자재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재 구매, 보관, 재고 관리, 공급망 최적화 등 업무 전반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이 자격증을 통해 업무 수행의 자신감과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퇴직 이후를 대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2년에 걸쳐 부동산 관련 세법과 민법, 공인중개사 법령 등을 공부하며 나는 자격증 취득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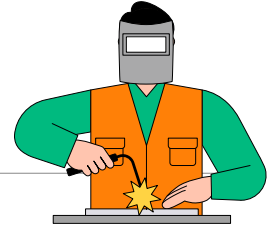
나의 경우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 회사의 정책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 회사는 인재 창조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승진·평가 가점, 축하 장려금 등의 정책으로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했다. 나는 그런 지원을 발판 삼아 경력 단절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회사의 결정이 옳았음을 자격증으로 다져진 업무 성과로 증명하고 싶었다. 더 나아가 나의 작은 날갯짓이 자그마한 바람이 되고, 태풍이 되어 더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가 취업의 문을 한 뼘이라도 더 열어주길 바랐다. 이런 점에서 자격증 취득은 나에게 주는 소중한 훈장이자,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였다.

### 다시 설렘의 길 위에서

돌이켜보면, 어느 하나 쉽사리 얻은 자격증은 없었다. 자투리 시간조차 허투루 쓰지 않으려 출퇴근 버스 안에서, 점심시간 걷기 운동 중에도, 동네 산책길에서도 메모지를 펼쳐 공부를 했다. 계절마다 새순을 틔우고 다시 피어나는 빨간 장미꽃 벚꽃처럼, 나도 매년 설렘을 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오롯이 피와 땀과 노력의 결정체인 자격증은 긍정의 씨앗이 피워낸 희망의 증표였으며, 나를 성장시킨 18개의 훈장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더 큰 성장을 위한 설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 날것의 '현장'에서 '과정'과 실력으로 증명하다



2025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사례 입상작, 이 현 님(부산용접 & 전기직업학교, 용접기사)

### 과거의 외면, 현재의 결단

회사를 나온 2021년 4월,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 저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생계, 하나는 장래가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

**'배운다면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하지?**

**지금 내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전주 소재의 대학에서 주전공으로 사회복지학, 복수전공으로 상담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복학할 무렵, 포크레인 기사이신 아버지가 '용접'을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현장 일'이 정말 싫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 자체보다 무뚝뚝하고 강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관련된 일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이 지나 사회복지를 그만두고 창업도 실패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했고, 제가 선택한 기술은 오래전 아버지가 권유했던 '용접'이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준비하고, 발로 뛰며 부산의 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목표로 했던 학원의 과정평가형 용접기사 과정은 정원이 찼고, 대기 순번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또 며칠이 지나고 다행히 기회가 생겨 2021년 5월, 저의 '용접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 생애 첫 용접사 타이틀

과정평가형 용접기사반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해 7월, 교수님의 권유로 '특수용접기능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험이기도 하고 작업형 시험이 따로 있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합격해 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기능사 시험에 합격하고나니 자신감이 샘솟았습니다. 그 기운으로 용접기사 시험도 자신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20명 중 마지막까지 합격한 사람은 6명뿐이었고, 그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내가 됐다니!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정말 꿈만 같고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용접기사' 자격증을 품에 안고 당당히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 '자격'으로 '날 것'의 현장에 서다

첫 일터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내에 있는 협력사의 용접사로 입사했습니다. 온통 철이 가득한 현장이었고, SMAW(피복아크용접)과 FCAW(플렉스코어드아크용접)을 담당했습니다. 현장은 학원에서 배운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것이 정제되고 가공된 것이라면, 현장은 그야말로 '날 것' 그 자체였습니다. 굉장히 와일드 하지만 '안전'을 중시하는, 낯설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잘 해냈습니다. 팀을 이끄는 '조장'이 되었고,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일본계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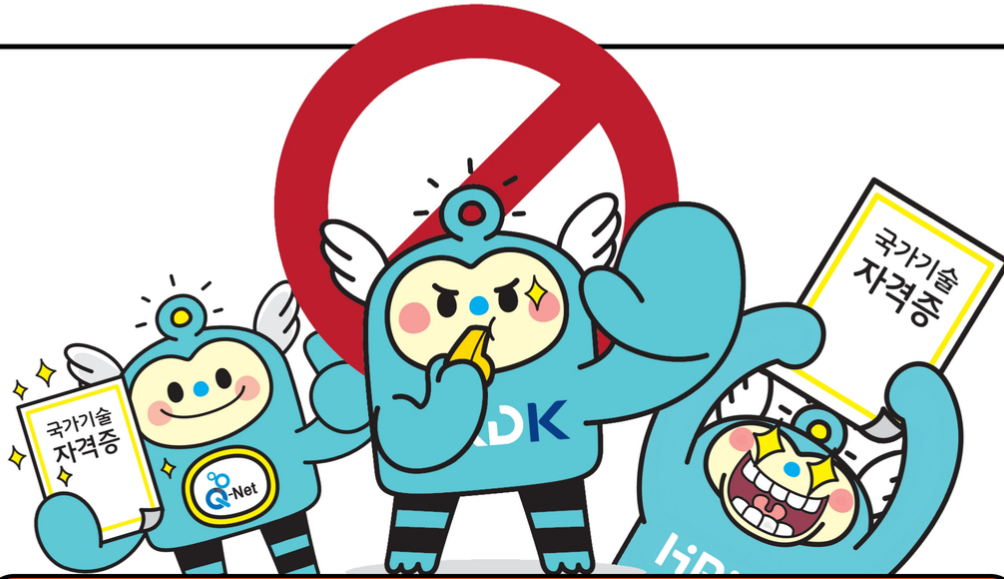
### 자격은 시작일 뿐, 실력으로 증명하는 중입니다

과정평가형 용접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력은 나날이 향상됐고, '조장'에서 '대리'로 승진했고, 연봉도 4,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 기술연수원을 수료하고 일본회사에서 한 번 더 이직했습니다.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과정평가형 용접기사 자격'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용접기사 자격취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와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과정평가형 용접기사 자격 과정을 통해 현재의 자격을 얻고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격'은 그저 '자격'이고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고 맞습니다. 때문에 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 종종 학원에 가서 파이프 용접도 합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불씨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정직한 자격이 진짜 실력입니다.  
자격의 가치는 스스로 지키기!

##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방법]

- ① 국민신문고
- ② 큐넷-자격정보-불법대여 신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16조, 제26조에 따라 대여 1회 적발 시  
자격취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위 포스터는 2025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 “Clean자격 홍보 공모전” 동상 수상작입니다.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근절

# 시험 문제 촬영은 범죄행위입니다.



✓ 촬영도구 예시



넥타이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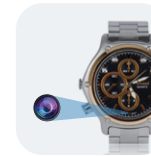
펜 카메라



안경 카메라



단추 카메라



시계 카메라



모자 카메라

\* 촬영도구가 의심될 경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위원은 금속탐지기 등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를 촬영하여 무단으로 복원, 복제, 판매하는 등의 침해 행위는 형사처분 대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시험문제를 촬영하는 등 검정 방해행위는 형사처분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 및 제26조)

시험문제를 촬영하는 것은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로 행정처분 대상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제한 등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련 개별법)



적발사례

'펜 카메라' 이용 시험문제 촬영 부정행위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검정 방해행위로 실형(벌금형) 선고 ('23.10.)



[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신고방법 ]

Q-Net 홈페이지 상단 고객센터 탭 '부정신고센터'로 신고

\* 제보 시,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증빙자료 첨부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

바로가기



큐넷

바로가기

오늘의 자격이  
내일의  
미래를 만든다



✓ 국가기술자격 · 국가전문자격 더 알아보기

▶ 큐넷 홈페이지 : <https://q-net.or.kr>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 일학습병행 자격  
더 알아보기

▶ 씨큐넷 홈페이지 : <https://c.q-net.or.kr>

문의처 : **1644-8000**



국가자격동향지(Q-letter)  
구독신청

